



## 특별한 스위스 스노우 체험.

스위스 겨울에 스키만 있을리 있나

에어보드부터 스노우튜브링, 스노우카이팅까지

총견과 함께 걷는 겨울 하이킹부터 빙하 위 구름다리까지

멀티 데이 스키 투어부터 빙벽 타기, 열기구 탑승까지

스노우바이크부터 팻바이크까지

스키와 보드로 유명해 전 세계 스키어들이 찾는 스위스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아래에 소개할 다채로운 겨울 체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대의 맥박을 질주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다. 신나는 열기구 탑승이든, 스노우카이트를 꼭 붙들고이든, 스위스 겨울의 가장 스릴 넘치는 면모를 체험할 수 있다. 기대하시라.

### 1. 스피드에 열광하는 그대를 위해

에어보드(airboard)에 배를 깔고 쏟아져서 슬로프를 따라 내려가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루체른(Luzern) 근교의 산, 슈토오스(Stoos)에는 만만치 않은 슬로프가 있어 스릴 넘치는 스피드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

### 2. 열정과 힘이 넘치는 당신에게

멀티 데이 스키 투어에 나서 보자. 안데르마트(Andermatt)와 엔겔베르그(Engelberg) 우르너 오프 루트(Urner Haute Route)를 추천한다. 긴 오르막과 가파른 내리막으로 형성되어 있어 스키 투어 재미가 쏠쏠하다.

### 3. 아찔하고 섬뜩한 스릴을 즐기는 그대에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구름다리를 건너보자. 길이 100m, 폭 1m의 현수교, '티틀리스 클리프 워크(Titlis Cliff Walk)'는 티틀리스 산의 절벽과 절벽 사이를 잇는 스릴 넘치는 다리다. 해발 3,041m에 있는 티틀리스 전망대, 슈드반드펜슈터(Südwandfenster)에서 시작되는 다리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발 아래로 500m가 넘는 공허한 낭떠러지가 심장을 울린다. 다리 끝으로 이어지는 150번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다리 끝에 도착하면 '아이스 플라이어(Ice Flyer)'라는 체어 리프트가 나타난다. 빙하 위를 날아 오르며 10m 깊이의 크레바스를 관찰할 수 있다.

### 4. 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루체른 근교의 리기 산에는 생 베르나르(St. Bernard)와 함께 겨울 하이킹을 나설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백 여년 전부터 그랬듯, 술통을 목에 건 총직한 생 베르나르와 함께 소복이 쌓인 눈밭을 고요하게 거닐 수 있다. 리기 칼트바드(Rigi Kaltbad)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리기 피르스트(Rigi First)의 샬레 쉴드(Chalet Schild)에 들러 따뜻한 음료를 즐긴 뒤, 정상 근처의 뵐페르첸-피르스트(Wölfertschen-First)에서 투어가 끝난다. 약 2시간이 소요된다. 3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투어가 있다.

### 5. 아드레날린 중독자들을 위해

썰매는 너무 지루하다고? 그렇다면 스노우 튜빙(snow tubing)에 도전해 보자. 대형 타이어 위에 올라 미끄러운 슬로프와 얼음 구간을 타고 내려가는 액티비티다. 레장(Leysin)에는 용감무쌍한 사람들만



도전한다는 스노우튬빙 파크가 마련되어 있는데, 스키 점프대에서 대형 에어 백 위로 뛰어 내리는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액티비티가 인기다.

#### 6. 이 세상 피터팬들을 위해

조금 덜 힘들면서도 흥분되는 액티비티를 찾고 있다면, 열기구 타기에 도전해 보아도 좋다.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기막힌 눈꽃 나라 풍경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샤토데(Château-d'Oex)는 매년 1월, 세계 열기구 축제까지 개최하는 열기구 마을이다. 2019년에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다.

#### 7. 노스탤직한 낭만파라면

벨로게멜(Velogemel)은 알프스 마을, 그린델발트(Grindelwald)에서 개발되고 생산된 전통 스노우바이크다. 썰매 트레일을 따라 마을까지 스노우바이크를 타볼 수 있는데, 2월에는 벨로게멜 월드 챔피언십 대회까지 개최된다.

#### 8. 정상파에게

자연의 힘으로 형성된 빙벽이 솟구쳐 있는 폰트레지나 계곡(Pontresina Gorge)은 도전정신 가득한 영혼에 손짓을 보낸다. 스케일이 다른 빙벽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다. 얼음으로 뒤덮인 절벽과 얼어붙은 폭포는 심지어 초보자에게도 적당한 도전이 되어 준다. 모험의 시간을 위해 장비를 착용해 보자.

#### 9. 햇살파에게

스노우카이트잉(snowkiting)은 여름에 즐기는 카이트서핑(kitesurfing)의 겨울판이라 이해하면 된다. 이색적인 겨울 스포츠로 체험해볼만 하다. 얼굴에 부딪히는 겨울 바람을 가르며, 얼어붙은 실바플라나(Silvaplana) 호수를 건널 수 있다.

#### 10.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대라면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는 사색을 즐기는 이들이 꽤 많다. 겨울에도 팻바이크(fatbike)를 타고 눈꽃 나라에서 사색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폭이 넓은 타이어는 보기에 인상적이지만 눈에서 라이딩을 즐기기에 적당하게 디자인 되었다. 다보스(Davos) 근교에서 팻바이크 겨울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